<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러시아의 「망나니」 옐친과 「YS」

한국의 정치 · 경제가 유사이래 대혼란과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난국중의 난국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똑같이 궁지에 몰려 있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집권 이후의 행태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닮은 꼴이 많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권과정부터 그렇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이전인 70-80년대에 야당의 원내총무를 비롯 총재를 역임하면서 온갖 탄압에 시달렸지만, 야당총재나 반정부 투쟁을 빌미로 옥고를 치른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무풍」의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 또 「정치9단」답게 3당통합이라는 「적과의 통침」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과감한 제휴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집권이전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발탁돼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고르비의 역쿠테타(?)에 과감히 맞서 의사당 앞에서 있은 「탱크위의 연설」을 통해 고르비를 몰아내고 대권을 거머쥐는 동기를 마련했으며, 9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집권」을 위해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과 손을 잡았다.

루츠코이는 당시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영웅(?)이라는 점 외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이다. 단지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루츠코이 장군을 런닝메이트로 전격 영입했던 것이다.

92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반란군 세력」인 「전두환-노태우」 라인으로 연결되는 민정당 및 3~4공화국 군부독재의 내조자였던 김종필 총재와 합종연횡한 것을 국민들은 「닭쫓던 개 지붕처다보는 심정」으로 한탄해했었고, 러시아 언론도 옐친과 루츠코이의 만남을 「이념이 다른 목적달성용 결합」으로 규정지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손을 잡았던 사람과 결별했던 방식도 유사한 점이 많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3당합당의 주역이었던 두사람 중 노태우 전대통령은 「물태우」답게 「영어의 신세」로 전락했고, 김종필 총재는 「토사구팽」의 신세가 되어 지금은 야당투사로 돌변한 상태이다.

옐친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루츠코이를 93년 의사당 점거 쿠테타의 주동으로 몰아 1년가까이 죄수복을 입힌 점에서 YS와 비슷하다. 루츠코이는 최근 주지사에 당선돼 정치적 제기를 이루었지만 부통령 시절에는 권력의 핵심에서 겉도는 부통령으로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김종필 총재가 허울좋은 민자당 대표위원을 지내다 쫓겨난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성과에 관계없이 「개혁」을 꾸준히 외치는 모습도 비슷하다. YS는 대통령 취임초부터 현재까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열불을 토했지만, 「개혁」에 집착하는 모습과는 달리 주변인물들의 「초유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채 최근에 와서는 차남이 저지른 「현철게이트」로 8공 청문회의 주인공으로 전락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이고, 「한보사태」라는 5조7000억원의 불법부정대출에 대해서도 「실체」는 없고 「부스러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PK검찰」은 부패와 무도덕으로 무장하고 있는 청산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고생했던 가신그룹들도 둘러쌓고는 있지만, 그들 내부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국정의 난맥상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취임초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도 요즘 한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옐친 대통령도 사회주의를 내팽개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러시아를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러시아 경제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남대문시장」이 되었고, 미국과 나란히 하던 군사대국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옐친도 차녀 디아첸코가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고, 요즘에는 그 높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은 물론 지병 악화로 사경을 헤맨끝에 국정쇄신을 외치며 총리를 비롯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나서 YS와 너무나도 비슷한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언제부터 이렇듯 닮은 꼴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그러할 것인가! YS와 옐친은 과연

퇴임후가 보장될 것인가?

재벌들의 약육강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과연 YS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가?

<화학저널 1997/3/10>